

SB리모티브, 2차전지 울산공장 건설

2011년까지 4000억원 투입 ... 그린자동차 타고 추가투자 가능성 높아

삼성SDI와 Bosch의 2차전지 합작기업 SB리모티브가 울산에 2차전지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SB리모티브는 8월27일 울산시와 삼성SDI 울산공장의 부지에 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울산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해 IT 등 첨단업의 신 성장동력과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 맞는 녹색산업이 절실했기 때문에 2차전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나게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SB리모티브가 울산을 선택한 이유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SDI 울산공장의 부지를 활용하기가 쉬운 점, 지역 에너지산업과 상생 발전이 가능한 점, 주변에 하이테크밸리를 조성해 협력기업의 입주가 용이한 점 등 가능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현금지원, 세금감면, 인허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SM리모티브의 리튬이온 2차전지 울산공장 건설은 현재 1단계로 앞으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세계 자동차용 전지산업과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SB리모티브는 2011년 말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공장을 건설함으로써 도심형 자동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BMW에 공급할 계획이며,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경쟁 추세로 볼 때 추가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7>